

장애인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과 시사점 연구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Public Benefits linkage i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이진현*

J. H. Lee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nd analysi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linkage on public benefits in loc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The service steps and the main program parts of public benefits linkage in loc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was identified, and the present status of associated repair works and contact supplier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 in local community was investigated. The result showed the most common level of associated status to provide inform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n public benefits. All the centers provided repair service, and it was typically performed to light maintenance. The centers offered with associated professional repair service supplier for high maintenance service. The conne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lier appeared a lot of regional difference. Henceforth, the centers will be required to distribute more variou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is necessary upgrading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benefits supporting organizations through its expansion, and it is need to ensure based on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bout linkage.

Keyword :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ssistive Technology Center, AT Device in Public Benefit,

1. 서론

장애인 보조기구의 필요성은 장애인들의 욕구 증대, 보조공학 기술의 발달, 보조기구의 효과성 입증 등 실증적인 적용과 연구들로 인해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1][2][3]. 또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

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으며[4][5],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 현재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에 1개의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세현(2012)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개념, 역할, 과제를 연구주제로 하

접 수 일 : 2014.08.14

심사완료일 : 2014.08.25

게재확정일 : 2014.08.27

* 이진현 :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연구실장

xess-jinhyun@hanmail.net (주저자)

여 분석하였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비스 주체인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감을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제언을 하였다[7].

등록 장애인수 증가에 따른 국가의 보조기구 공적급여 예산이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평가, 지원, 관리 체계를 더불어 전략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8]. 공적급여의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과반수의 지역사회 장애인들은 여전히 보조기구의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서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공적급여 중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사업’의 경우 보조기구센터의 개입을 통해 장애인을 직접 상담·평가 후 신청한 보조기구의 적합성을 파악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적합한 보조기구 제공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9]. 하지만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보조기구가 지원되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5]. 이에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센터는 장애인들이 요구를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각 부처별 공적급여 지원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10]. 이러한 역할의 모델로 광역 보조기구센터는 정부 의지의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확산될 수 있으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보조기구 전문 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입은 기존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해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의 보조기구 활용도와 만족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11]. 즉 보조기구의 적절한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며 국내 공적급여의 체계에서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2014년 신규로 설치된 2개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에서 연계하고 있는 공적급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조기구 전문센터가 공적급여 지원 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파악하여 각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조사방법

2.1.1 자료수집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7개 센터 중 직접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중앙보조기구센터를 제외한 6개 장애인 보조기구센터(대구,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충북)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12월 3일부터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았으며, 회신 자료를 1차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계 현황에 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2.1.2 자료분석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지원,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산재 장애인 보장구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교육공학기기 지원 등 공적급여 대한 연계 방법조사는 MOU체결, 상호 공문 발송을 통한 협조, 신청방법 안내, 직접 상담, 기기 적용 및 훈련, 사후 관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현황 조사는 연계 방법으로 기관 또는 업체 의뢰, 공문 회신 및 답신, 지자체 수리 방법 안내, 직접수리, 사후관리, 경·정비 서비스로 제시하여 파악하였으며, 또한 연계 기관(업체) 수를 파악하였다.

공급업체 연계 현황 조사는 장애인보조기구센터가 보조기구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가 보조기구를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 연계된 업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재원에 따라 공적급여 체계를 통한 연계 지원,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지원, 민간자원 연계 지원, 자부담 연계 지급 등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요소들에 대한 각 기간의 현황에 대하여 기관별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사항과 기관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즉 장애인보조기구센터들이 다양한 공적급여의 적절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현재 마련된 상황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2.2 조사결과

2.2.1 공적급여연계 파악

현재 공적급여에서 각 센터별로 지원하는 연계하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연계하는 방법과 각 센터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으로 공문 발송, 신청방법 안내,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5개 기관은 기기 적용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두 번째,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에서는 공통으로 실시하는 연계방법으로 신청방법 안내가 있으며, 각 센터별로 연계방법은 기기 적용 및 훈련 3개 기관, 사후관리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공통된 연계 방법은 없으며, 신청방법 안내가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기기 적용 및 훈련이 각각 1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연계 하지 않는 기관도 2개 기관이 있었다.

네 번째, 산재장애인보장구 지원에서도 공통된 연계 방법은 없었으며, 센터별로 신청방법 안내가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는 방법이며,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기기적용 및 훈련이 각각 1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연계하지 않는 기관도 2개 기관이 있었다.

다섯 번째,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원에서 신청방법 안내가 공통으로 연계하는 방법이었고, 각 센터별로는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기기 적용 및 훈련, 사후관리 연계 방법이 4개 기관이 선택하였고, 공문 발송도 1개 기관이 선택하였다.

여섯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기 지원은 공통된 연계 방법은 없었고, MOU체결, 신청방법 안내,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사후관리, 공문 등에 각각 센터 1개 기관씩 선택하였다. 연계를 하지 않는 기관도 2개 기관이 있었다. 그 외 연계 방법으로 정보통신보조기구의 전시회 참가가 있었다.

표 1. 공적급여연계방법

구분	공통 연계 방법(6기관)	센터별 연계 방법(중복선택)	
		내용	기관수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공문발송 신청방법 안내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사후 관리	기기 적용, 훈련	5

건강보험보장구 지원	신청방법 안내	기기 적용, 훈련	3
		사후관리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없음	신청방법 안내	4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1
		기기적용, 훈련	1
		연계 없음	2
산재장애인보장구 지원	없음	신청방법 안내	4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1
		기기적용, 훈련	1
		연계 없음	2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원	신청방법 안내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4
		기기적용, 훈련	4
		사후관리	4
		공문	1
		연계 없음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없음	MOU체결	1
		신청방법 안내	1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1
		사후관리	1
		공문	1
		연계 없음	2
그 외 연계 방법		전시회 참가	1

2.2.2 지자체 수리사업 연계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방법으로는 직접수리, 사후관리 연계는 각 센터별 모두 실시하고 있었으며, 센터별 실시하고 있는 연계 방법으로 경·정비서비스가 5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또는 업체 의뢰를 통해 수리사업을 연계방법을 선택한 기관은 4개 기관이고, 지자체 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기관이 4개 기관, 지자체 수리 상담이 4개 기관 공문회신 및 답신으로 연계하는 기관이 1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센터별 연계하고 있는 업체 및 기관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센터별로 연계된 업체 및 기관의 수가 작게는 2곳에서 많게는 12곳으로 나타났다. 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등록된 업체와 연계하고 있었다. 광주의 경우 대부분 미등록 업체와 수리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센터의 경우 지역별 지원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 군 별 지원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방법

센터별 연계 방법(중복선택)		
	내용	기관수
공통	직접수리	6
	사후관리	6
센터별	경·정비서비스	5
	기관 또는 업체의뢰	4
	지자체 수리 방법 안내	4
	지자체 수리 상담	4
	공문회신 및 답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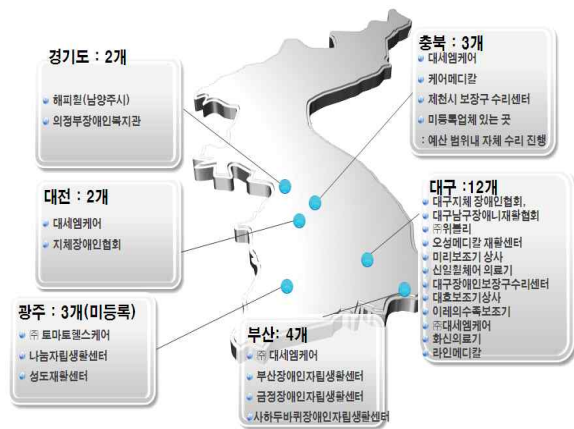


그림 1. 보조기구 센터별 연계 기관 및 수리기관

2.2.3 공급업체 연계방법

공급업체와 연계 방법으로 수리사업 연계가 5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무료교부사업 연계 보급, 민간자원연계 지급, 자부담연계 지급이 각각 4개 기관이 선택하였고, 건강보험보장구 연계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연계 지급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공급업체 연계 방법

센터별 연계 방법(중복)	
내용	기관수
수리사업 연계	5
무료교부사업 연계보급	4
민간자원연계 지급	4

자부담연계 지급	4
건강보험보장구 연계지급	3
정보통신보조기기 연계지급	2

공급업체 관련 연계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에 안내를 하고 시·군에서는 안내 업체나 연계된 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므로 공급업체와 연계되는 것이 없었다. 광주의 경우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계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급업체를 안내하고 시·군에서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 하며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기 검수과정, 수리 등을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수리 사업은 지역 내의 2개 기관에서 설립한 수리 센터에서 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부품 공급 등의 수리 관련 연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연계된 공급업체의 수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별 공급업체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계기관 및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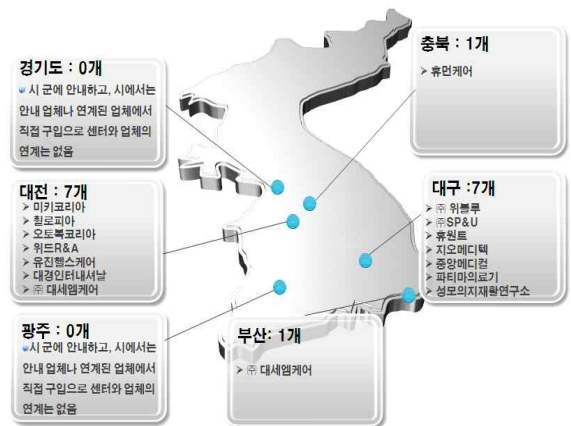


그림 2. 보조기구 센터별 연계된 공급업체

3. 결론

국내 보조기구 지원이 과거에 비해 예산의 규모나 전문성이 확대되었지만 장애인의 학습, 직업, 독립을 도모할 수 있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에 공적급여 예산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7]. 또한 각 광역단위의 보조기구 센터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규모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각 지역의 보조기구 센터는 기본적으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적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무

료 교부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조기구가 교부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서비스 절차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다. 건강보험보장구 지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의 사업은 보조기구 신청방법 안내만을 공통적으로 연계하고 있었다. 각 공적급여 별로 센터 마다 연계 방법은 상이하게 나타났다었는데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공적급여는 기기의 적용과 훈련을 제공하는 센터들이 많았으며, 나머지 부처의 경우 각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2]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조기구를 받는 과정까지의 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의 일환인 보조기구 수리는 현재 모든 센터들이 직접 수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한 경·정비에 거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상이한 수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수리 부위를 파악하고 연계된 수리 업체 및 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각 공적급여 및 수리사업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된 공급 업체도 지역별로 상이 하였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급 업체 수가 부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국내 실정이 해외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같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 지역 단위별로 보조기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공급업체를 통해 지원[12]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국내의 보조기구의 전문적인 서비스 기간이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짧기 때문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급여 연계를 통해 지역별 보조기구센터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기구센터에서 전문적인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확충이다. 각 공적급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최소한개 이상의 기구의 구비가 필요하다. 품목에 비해 장애인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매우 다양함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기구의 확충이 필요하다. 각 공적급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순한 제품의 이름 또는 사진 등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들을 전문기관이 해소하여 줌으로써 각 공적급

여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각 공적급여의 지역별 신청 부처별 실무자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더불어 해당 부처를 통한 보조기구센터를 홍보해야 한다. 즉 공적급여를 신청 받는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보조기구 신청 단계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 및 평가의 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지역 단위의 센터에서 연결하기에 제도권의 서비스 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보조기구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에 대한 효과성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직업 및 고용, 학습,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구의 적용이 효과 있으며, 전문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3]. 향후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들이 요구되어지며, 공적급여에서 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조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적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아직 보조기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지 않았으며, 또한 설립된 연도 및 운영을 실시한 기간들이 상이하여 공통된 요소들을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제기된 방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고, 보조기구 센터는 장애인들의 삶에 보조기구의 사용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있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1] 오길승,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재활공학 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05.
- [2] 이창희,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인지와 욕구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 50권, 제 2호, pp. 43-62, 2011.
- [3] 공진용, 정승민 “보조공학 성과의 비용·효과성 분석에 관한 고찰연구 -SCAI를 중심으로-” 보조공학저널, 제 3권, 제 2호, pp. 1-21, 2009.
- [4] 오도영, 이근민. “텔파이 기법을 이용한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 분석” 중복·지체

부자유교육, 제 50권, pp. 147-164, 2008.

[5]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4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 운영매뉴얼” 국립재활원, 2014.

[7] 남세현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역할에 관한 연구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 17권, pp. 149-169, 2012

[8] 권정진, 박지연 “장애인보조기구산업 실태조사 연구” 장애와 고용, 제 22권, 제 4호, pp. 5-31. 2012

[9] 정승민, 임명준, 김홍모 “보조기구센터를 통한 공적급여보조기구 지원 결과분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250-251, 2012.

[10] 황준길, 송길호, 오수진, 장완호, 한승호, 송병섭 “공적급여 보조기구 전달체계에서 전문보조기구센터의 실효성 연구: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중심으로” 재활복지공학회 논문지, 제 7권. 제 1호, pp. 73-79, 2013.

[11] 이근민, 이진현, 김동욱 “장애인 보조기구의 대역, 개조 및 맞춤제작 적용을 통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사례 연구” 재활복지공학회 논문지, 제 5권, 제 1호, pp. 125-132, 2011.

[12] Carlson, D., Ehrlich, N. J. “Sources of payment for assistive technology: Finding from a national surve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sistive Technology, vol. 18, no. 1, pp. 77-89, 2006.

[13] 전영환, 최원석 “보조공학서비스 효과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이진현

2004년 2월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졸업(학사)
 2004년 3월 - 2005년 11월 (사)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근무
 2009년 2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공학과 졸업(석사)
 2012년 8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공학과 졸업(박사)
 2010년 8월 - 현재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연구 실장

관심분야 : 보조공학, 앉기 및 자세, 컴퓨터 접근, 서비스 전달체계